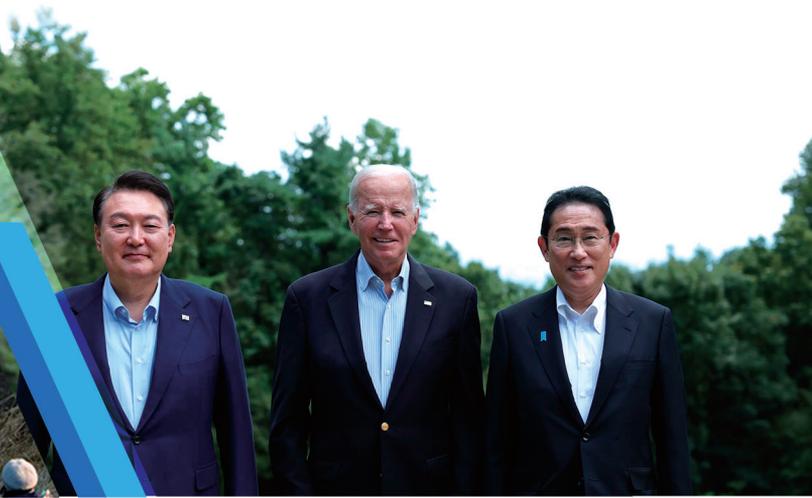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단법인  
북한인권  
NORTH KOREAN HUMAN RIGHTS

# 북한인권 문제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 북한인권 문제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本 책자는 2023.9.25에 개최된 '북한인권과 캠프데이비드 선언' 제하 세미나(태영호 의원실·사단법인 북한인권·올인모·한변 등 주관) 주요내용 및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논문(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발간사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3國 정상은 同 회의시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3자협약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하고 전면적 협력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질서가 新냉전의 대결 구도로 접어든 상황에서 세계 GDP와 교역량의 1/3을 차지하는 자유민주주의 3國이 특별히 모여 유럽의 NATO와 같은 가치동맹임을 다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선도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캠프데이비드 원칙 중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부분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서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은 세계 최악이자 최장기에 이르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 척결을 주창한 UN COI가 설립된 지도 1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核·미사일에 광분하는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인권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절대적인 정보통제와 정치범수용소 등에 의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은 기근과 성폭행 그리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이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現 시점이야말로 천금 같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원칙·공약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찾을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각국 정부·NGO·국제기구·인권운동가 등 많은 분들에게 本 자료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12

사단법인 북한인권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김 태 훈



# 목차

## 제1장 북한인권 실태

1.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대상 .....	11
2.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실태 .....	11
가. 기본권 침해	
나. 감시·검열·처벌	
다. 외부정보유입 통제의 강화	
라. 취약계층의 인권	
3. 해외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 .....	12
가. 在中 탈북민의 인권	
나. 해외 북한노동자들	
4. 강제실종자 문제 .....	15
가. 국군포로	
나. 전시·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	
다. 강제실종자들 대상 차별대우	

## 제2장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

1.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 의의 .....	19
- 韓美日 협력의 새로운 장	
2. 캠프데이비드 원칙 주요내용 .....	20
- 韓美日 파트너십과 공동의 비전	
3. 캠프데이비드 정신 주요내용 .....	21
가. 새로운 시대의 출범	
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4.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	22
- 공동위협에 대한 3國간 공조	

## 제3장 북한인권 문제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 對北인권압박 협력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	27
가. 북한인권 문제 → 韓美日 공동의 과제임을 선언	
나. 3國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One Voice 공고화	
2.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전략 .....	28
가.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필요성	
나.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의 연계성 인식	
다. 북한인권 문제 주류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추진	
3. 인권 · 자유민주확산 · 평화통일의 선순환적 연계 .....	30
4. 결 론 .....	30





제1장

# 북한인권 실태



## 제1장 북한인권 실태

북한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 내부 주민들의 인권침해로만 국한하면 북한인권 실태의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된 북한인권 문제의 특성상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해해야만 인권 증진에 대한 전략 또한 명확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 1.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대상

우선 북한 내부의 주민들은 당연하게도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이들은 당국의 비인도적 처우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권까지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로는 해외 각국의 탈북민과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해외에 있는 이들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대상에 포함될까요? 그 이유는 북한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을 벗어 났음에도 여전히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 아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군포로(POW), 전시·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가 있는데 현재 정확한 규모는 추정치로만 가늠할 수 있으며 북한측의 정보 제공이 없어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인권 '뒷걸음' 일러스트  
출처 : 중앙일보

### 2.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 실태

#### 가. 기본권 침해

북한내 주민들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국이 '정권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데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에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중입니다.



북한 국경경비대의 주민 검열  
출처 : AFP통신

## 나. 감시 · 검열 · 처벌

특히 북한 정권은 내부 보안조직을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고문 · 구금 · 강제노동 · 공개처형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일삼는 통치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 종교 · 집회결사와 관련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구류장 · 노동단련대 · 교화소 · 정치범수용소 등 각종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됩니다.

## 다. 외부정보유입 통제의 강화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 정보유입이 정권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하거나 유포 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청소년 교양보호법」 · 「평양언어 및 문화 보호법」을 연달아 제정해 북한 전체를 '블랙박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법들을 어길 시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 제정)  
출처 : KTV국민방송

## 라. 취약계층의 인권

북한내 취약계층인 여성 · 아동 ·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북한사회 특성상 인신매매와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구금시설에서의 성별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각종 노동현장에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에 제한을 두는 등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해외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

### 가. 在中 탈북민의 인권

재외 탈북민들 중에 특히 중국 체류 탈북민의 상황을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탈북 루트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가이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탈북민들의 강제 복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① 탈북민의 중국내 법적지위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체결한 '朝中 탈주자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과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의정서'에서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탈북민을 현지 난민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UNHCR 입장과는 다르게 중국 주재 UNHCR 사무소 또한 독단적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을 따르며 협조에 불응하고 있어 在中 탈북민 보호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내 탈북여성 인터뷰  
출처 : AP통신

### ② 중국의 강제복송 실태

중국내 탈북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23년 북한의 국경 재개방을 계기로 강제복송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며 다시 한번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2023년 8월 약 3년 7개월 간의 봉쇄를 해제하고 국경을 개방하였는데, 중국내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 2,600명의 탈북민중 600여명이 2023년 10월 초까지 강제 복송됐고, 나머지도 언제든지 복송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발전과 CCTV를 통한 모니터링·생체정보 수집 등 감시기능 강화로 탈북민들의 중국 탈출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③ 對中 인권압박의 한계점

국제사회가 탈북민 문제 관련 중국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난민 문제를 포함한 UN의 각종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 이는 모순적이게도 중국내 탈북민의 보호·구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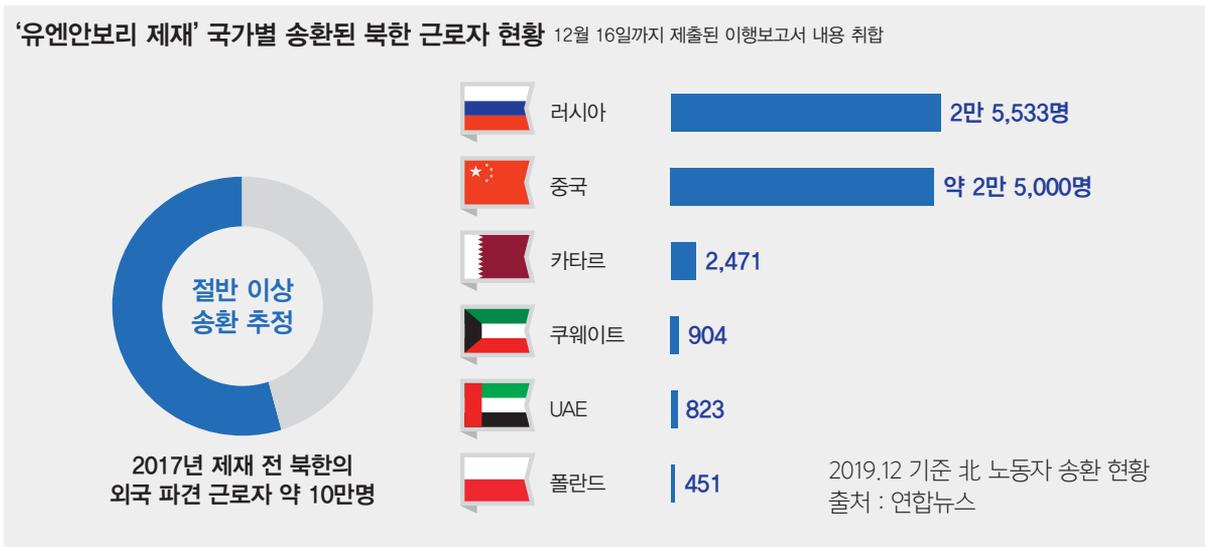


### 나. 해외 북한노동자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을 수행하는 '현대판 노예'로 불립니다. 이들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에 달하는 강제불법노동에 동원되고 있는데, 휴일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의 70~90%를 북한 정권에 강제로 상납해야하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김씨 일가 통치자금과 사치품 구매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 등 중요 국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현황

UN대북제재 결의 제 2397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금지되었으며 각국은 2019년 12월까지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美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2개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건설·의료·IT 분야의 노동자들을 파견 중인 것으로 보이며 연간 3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 ② 北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구조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파견국 노동법 관련 정보가 부재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때문에 임금 착취와 함께 근로지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 또한 온전히 견뎌내야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해외노동자를 대상으로 보안요원 배치, 조별 감시체계 구축, 개인 휴대폰 사용 내역 점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근로지 이탈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③ 러시아 파견 노동자 증가 우려

코로나 상황 호전으로 2023년 이루어진 북한의 국경개방과 더불어 김정은 訪러를 계기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실태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訪러(2023.9)  
출처 : 중앙일보

## 4. 강제실종자 문제

세계 각국에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들은 실종자의 본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내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만큼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로 남아있습니다.

### 가. 국군포로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국군포로(POW)의 경우 휴전협정 당시에 UN司 추정 8만 2천명으로 공표되었는데 북한은 그 중 8,800명만을 한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북한은 나머지 포로들의 경우 북한에 남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 나. 전시·전후 납북자 및 억류자

6.25 전쟁기간 동안 9만 여명 정도가 납북되었으며 전후 납북자도 516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령화로 인해 생존한 납북자의 수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6명의 한국 국적 억류자들의 생존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17명을 자국 납북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고이즈미-김정일 정상회담(2002.9) 계기 5명을 송환받은 이후 남은 12명의 유해라도 송환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다. 강제실종자들 대상 차별대우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실종자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사회 전반적인 활동과 권리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국군포로는 '43호'로 낙인찍어 따로 관리하며 직계가족들까지 감시하기에 이르렀고 진학·직장 배치·입당·군입대 등 모든 방면에서 차별받도록 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감시·차별아래 가혹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25전쟁  
납북 피해자 현황(단위:명)  
자료 : 통일부

전전 납북자 **인원 미상**

전시 납북자 **9만 4,121**

전후 납북자 **516**

한국인 납북자 현황(2017.5)  
출처 : 세계일보





제2장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



## 제2장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

韓美日 3國은 2023년 8월 18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곳에서 세 정상은 韓美日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데이비드 원칙’ 및 협력의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협의 강화를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가지 합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제2장에서는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의 의의와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캠프데이비드 韓美日 정상회의 의의

#### 韓美日 협력의 새로운 장

오늘날 미증유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또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韓美日 3國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2023년 8월 韓美日 3國 정상은 캠프데이비드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同 韓美日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3國 정상회의는 국제 다자회의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韓美日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同 회담이 최초입니다.

이곳에서 3國은 자유·인권·법치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규범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同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첫째, 3國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확립하여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정상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둘째, 향후 3國 협력 추진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문서화하여 ‘캠프데이비드 원칙’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셋째, 역내에서의 도전·도발·위협과 관련 신속한 협의·정보공유·메시지 조율·대응 조치 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협의에 대한 공약’을 세운 것입니다.



韓美日 공동기자 회견  
출처 : 연합뉴스



#### 8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안보·경제·세계적 의제 등 협력 강화 및 대북 억지력 강화방안 논의

#### 캠프데이비드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

부지 : 약 73만㎡  
시설 : 산책로, 골프연습장, 테니스 코트, 수영장, 볼링장, 승마장, 영화관 등 휴양시설 및 사무실, 회의실, 숙소 등

캠프데이비드 회담  
출처 : 연합뉴스



韓美日 정상회의  
출처 : 연합뉴스

위와 같은 정신·원칙·공약이라는 3중 결속 장치를 통해 3國간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화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유럽의 NATO 같은 가치 동맹을 다짐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넘어 전세계 질서를 선도하겠다는 결의인 동시에 美日동맹(1951년)·韓美동맹(1953년)의 현재 동북아 안보체제 탄생 이후 70년만의 대격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캠프데이비드 원칙 주요내용

### 韓美日 파트너십과 공동의 비전

3國은 각국간 파트너십 및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면서 △ 공동의 가치 △ 상호 존중 △ 3國·지역·세계 번영 증진을 위하여 아래의 원칙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발전**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역내 평화**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할 것입니다.

**인권·인도적 사안**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유·평화·통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합니다.

#### UN헌장 원칙

UN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全 지구적 이슈

全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3. 캠프데이비드 정신 주요내용

#### 가. 새로운 시대의 출범

3國은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 경제 강화 △ 회복력 및 번영 제공 △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지지 △ 지역·글로벌 평화와 안보 강화 △ 민주주의 증진 △ 인권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國간 소통의 강화를 위해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 개선 추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정상간 연례회의

최소한 연례적으로 3國 정상, 외교장관, 국방 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기존의 3國 협의를 보완할 것입니다.

#### 장관급 회의

첫 3國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간 연례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 인도-태평양 협의체

인도-태평양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찾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입니다.



#### Spirit of Camp David (회의 비전·이행 정신)

-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 확장역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캠프데이비드 정신  
출처 : 중앙일보



## 나. 자유롭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韓美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에,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韓美日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포함,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면서 △ 북한내 인권 증진 협력 강화 △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와 자유롭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 출처 : 연합뉴스

## 4.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 공동위협에 대한 3國간 공조

韓美日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정보공유 △ 메시지 동조화 △ 대응조치를 조율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각국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밝게 웃는 韓美日 정상  
출처 : 연합뉴스





## 제3장

# 북한인권 문제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 제3장 북한인권 문제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지지함은 물론, 북한인권 문제를 3國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對北인권압박 협력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 가. 북한인권 문제 → 韓美日 공동의 과제임을 선언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된 다양한 원칙들중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들은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등과 관련된 인권 및 인도적 사안의 해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납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명기된 것은 韓美日 3國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인권 확산이라는 중요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3개국의 이와 같은 중요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궁극적으로 同 가치의 확산을 위해 함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즉,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결국 韓美日 3國이 북한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미증유의 3國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천명은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윈비어 모친(2023.4)  
출처 : 대통령실

### 탈북어민 복송일지

- 2019년 11월
  - 2일 북한 어민 2명, 동해 NLL(북방한계선) 넘어옴
  - 5일 정부 “어민 추방한다” 북에 통지
  - 7일 귀순 어민 복측으로 추방
  - 8일 북한 선박도 인계
- 2022년 7월
  - 6일 국정원, 서훈 前 국정원장 등 고발(직권남용 등)
  -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의용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직권남용 등)

### 나. 3國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One Voice 공고화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성향에 따라 상반된 정책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전임 문재인 정부는 UN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은 물론, 법정 단체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탈북어부를 적절한 조사도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소환하는 등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 관심과 더불어 3國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합된 요구는 북한에게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으로 구체화 된 3國간 협력에 대한 약속은 향후 현재와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도 북한인권에 대한 철저한 외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 2.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전략

### 가.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필요성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논하는 데 있어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는 빠져있거나 부차적으로 언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슈에 비해서 북한인권 문제가 비중이 낮게 다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권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2023년 7월 당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복핵만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주류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韓美日 3國의 협력은 대체로 군사적 측면에서 지역안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군사적 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前통일부 장관 (2023.7)  
출처 : 연합뉴스

국제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의 연계성 인식

현재 국제사회内에는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개발 등 군사모험주의의 이면에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억압과 노동력 착취가 핵개발 비용충당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국제사회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도 이러한 관점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의 인권 악화 지속상황은 핵개발과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은 강제노동과 착취에 의존하여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2023.10 워싱턴)

#### 다. 북한인권 문제 주류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추진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6년만에 UN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러는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제기에 대해 “이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라며 북한을 두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美中·美러간 기존의 군사안보적 갈등과 함께 인권문제에서도 갈등을 초래, 강대국간의 새로운 안보 위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UN 등 국제무대에서 韓美日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인권문제의 주류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연대인 韓美日 3國은 △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 문제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北核과 북한인권 문제 연계성을 강조하는 韓美 인권대사(2023.10)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2023.8)

때마침 韓美日 3國은 △ 민주주의 △ 시장경제체제 △ 인권확산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 확인하고 선언한 바,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 견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최초로 공개 발행  
출처 : 대통령실

### 3. 인권·자유민주 확산·평화통일의 선순환적 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통일을 위한 논의에 장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통일의 기본 전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우리 주도하에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논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은 同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韓美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에 민주화 사조를 유입시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낼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 변화가 견인된다면 이는 곧 인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역내 안보 상황 개선에 따른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韓美日 3國은 인태 전략 추진의 파트너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 것은 對北인권 압박을 위한 3國간 협력 및 북한인권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인 우리 주도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첫 단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4. 결론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개발 상황의 심각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들의 해법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韓日관계의 극적인 개선에 힘입어 韓美日 3國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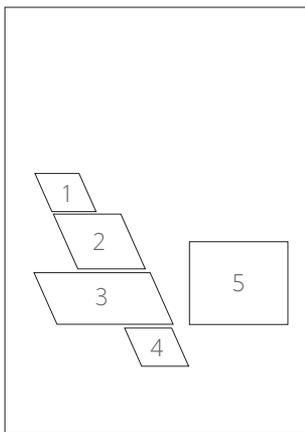
同 회의에서 3國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 공유국으로서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중요 이슈로 공론화시키고,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해 나갈 확고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북한인권 문제 해법의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對北 인권압박을 위한 3國 및 국제사회의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3國간 협력의지와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기 3國 정상회의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對北 인권압박을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 문제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표지사진 출처

1 AP / 2 성통만사 / 3 AFP / 4 Human Rights Now / 5 대통령실